

추억의 합격기

[1992년도 제34회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

神이여! 뜻대로 하소서



이재만

『학력 사항』

- 배재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사항』

- 현)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
- 대한체육회 법률고문
- CBS TV 객원해설위원
-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1992년도 제34회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

신림동 상원서점 앞에서 합격자 명단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도중에 후배 박성인 군이 잡지사에 건화를 걸어 합격을 확인하여 주었다.

“똘, 똘어.” 이렇게 고시에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었다. 최고령 합격자가 되고보니 어느덧 30대는 흘러가고 마흔 한 살이 되었다.

사시합격이 고통과 인고의 나날을 보상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 집중적인 노력으로 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전을 치른 노장수험생으로서의 시행착오를 동도의 제형들이 다시 겪지 않기를 비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수험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부자체에 대한 고통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生의 허망함들이 더욱 힘들었다.

동도의 제형들이여! 합격조차도 비참한 일인진데 그래도 불합격보다는 낫다 하니 집중적인 노력으로 生의 낭비를 막기 바란다.

I. 고시 이전

1952년 2월 2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어려서 영특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 대소가의 어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면서 족보를 자상히 설명해 주시던 기억이 난다.

1970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대학을 다니다 다시 三修의 과정을 거쳐 1972년에 연세대학교 정법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재학 중에 친구와 휩쓸려 행시준비를 했는데 고시자체를 즐기던 어리석은 시절이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동부전선에서 만기전역했다.

제대하니 나이는 이미 30이고, 직장을 갖느냐 고시를 하느냐의 기로에서 행시를 선택했다. 제대 후 1차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2차시험에서 실패했다.

제도전의 준비중 합격한 사무관들이 보수의 비현실성(당시는 보수가 아주 낮았다)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 하면서 행정고시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의 사람들이 볼 시험이라고 하였다.

주변에 사시준비생이 많이 있었는데 법조직역이 확대되고 반드시 죄인만을 상대하는 직업이 아님을 알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또한 무척 어려운 시험이나는 사실이 도전하고 싶은 의욕을 갖게 되었다.

내가 해 낼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다. 이 때가 내 나이 이미 33살이었다.

II. 고시 입문

신촌에 있는 웅지도서실에서 사법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법학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행정고시를 준비한 경험이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커다란 시행착오는 없는 듯 하였으나 영어성적이 저조하여 걱정이 되었다.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 독일어로 결

정하고 대입학원과 을지로에 있는 독일문화학원을 다녔다. 5개월의 집중투자로 처음 선택한 독일어에서 82.5점을 획득했으나 국제법에서 70점이 나오는 바람에 2개 차이로 1차시험에 실패했다. 이즈음 연세대학교에서 겨울특강을 개설하므로 전과목 수강을 하였는데 초학자인 내게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때 강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他大學에 원정하여 특강을 수강하였는데 대체로 3년에 걸쳐서 과목당 3~4번의 강의를 들은 것 같다.

법학강의를 들으면서 법리를 깨쳐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하늘이 무너졌다. 남동생이 벽에 기대어 눈물짓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효도를 하고자 하여도 아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漢詩를 학창시절에는 무심히 넘겼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라 불효자는 임종도 못하는 한을 가지게 되었다.

신촌에서 봉천동의 청운고시원으로 옮겨 공부하는 도중에 신림동의 고시촌을 알게 되어 고시의 메카라는 고시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다.

벤엘고시원에서 처음으로 1차시험에 합격하고('87) 사시 2차시험장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었다. 神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시했다. 소송법이 정리가 덜되어 있어 시험 당일 몇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출제되었다. 나중에 성적을 알아보니 과락없이 하마터면 붙을 뻔 하였다. 사법시험도 그다지 어렵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가져온 이른바 고시모독의 대가로 5년거치 6년상환의 형극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당시에는 몰랐다. 다시 장소를 화동고시원으로 옮겨 숙식을 해결하고 공부는 유명고시원에서 하였다.

화동에서 연고대·서울대의 노장과 소장 몇

이 어울려 그룹스터디라는 것을 하였는데 노장이 대체로 그렇듯이 모질지 못하고 多心한 성격들이라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는 실패에 대한 희한보다도 자기자신에 대한 분노로 집으로 철수하여 두문불출하면서 5개월간 미친듯이 공부를 하였다. 전과목 개념 목차집을 작성하고 이를 녹음 tape에 담았다.

Ⅲ. 좌절과 방향

이제는 중무장한 상태라 동시합격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1차시험을 보고 바로 태학관에서 실시하는 2차시험 모의고사반에 들어갔다. 대부분이 면제자들로 1차시험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최상위권에 있었다. 매일 치르는 모의고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1차시험 발표가 있었고 내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1차시험에 대한 투입시간이 적게 책정된 것이 패인이라고 분석하고 4개월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2차시험보다 1차시험이 더 걱정이 되어 4개월 정도 1차시험에 배당하였다.

1차시험 발표일이 가까워오자 다소 불안하기도 했으나 나란히 접수한 후배와 같이 광장 서적 앞에서 명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후배가 인파를 뚫고 명단을 보고 나오며 “어휴 다 떨어졌어.”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청룡 약수터 인근 벤취에 앉아 구멍가게에서 사온 맥주 몇 병을 마시면서 냉정히 패인을 분석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어떻게 해야하나?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조롱하는 것도 같고 방해하는 것도 같다.

“神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조차 들 지경이었다. 다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는 중압감보다 가족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 힘이 들었다.

포기할 수는 없다.

심기일전하여 다시 밀알고시원으로 옮겨 숙식을 해결하고 공부는 동원고시도서실에서 하였다. 1차시험 준비기간을 6개월로 잡았으나 2차시험 과목을 보다 시기를 놓쳐 5개월 정도 하게 되었다.

1991년 4월 28일 1차시험을 목표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있었다. 시험보기 2주일 전쯤에 여동생이 유럽으로 떠나기에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남동생이 고시원까지 바래다 주었다.

밀알고시원 앞에 서서 車를 돌리는 것을 보고 손을 흔들며 서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1차시험보기 3일 전에 후배가 면회를 왔다. 표정이 심각하여 무슨일인가 하여 다방에 갔는데 메모종이를 내놓았다.

급히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로 갔다.

3일간 상주노릇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소주만 마시니... 시험전일 친척들이 남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험을 보라면서 집으로 보내 비정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더 이상 고시원에 있을 수 없어 집으로 철수했다. 2달이 명하니 집에서 보냈다. 1차시험 발표일에도 집에 있었는데 저녁 9시경에 밀알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1차합격을 전해주었다. 7일 정도 책을 보다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총점 3점정도 모자라 실패했다.

IV. 재 기

인생의 허망함에 시험에 대한 의욕을 잃으니 하루 1시간도 집중하기 힘들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봉천동의 三·一고시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슬럼프가 계속되므로 태학관 모의고사반에 등록하여 그날그날 시험을 보면서 근근히 공부하였다. 이때 젊은 재사 김복형양이 老兵을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었다. 그 후 한림모의고사반으로 옮겨 시험을 치르는데 유기준 군이 합류하였다. 시험 1개월 전에 신림동에 하숙을 정하고 유명도서관에서 최종정리를 하였다. 2차시험을 치르고 하숙집에서 철수하던 날 포기를 생각해 본적이 없건만 작은 책상, 책꽂이 등 비품을 후배에게 모두 주어버렸다. 이제는 집착도 애증도 없어진 無心한 상태로 모든 것은 神의 뜻에 맡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神이여! 뜻대로 하소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서 합격했다.

V. 글을 맺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으나 수험기간의 장기화로 온통 회한만 남은 듯하다.

정상을 오르기까지의 땀과 피로가 상쾌하게 불어온 바람에 의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정상에서 머리 들어 바라보니 이 곳은 오래 머무를 장소가 아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어머니, 두분 누님, 여동생의 격려와 위로가 없었던들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수험기간 중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과 하나 뿐이었던 남동생의 연전에 이 자그마한 열매를 바친다.

시험직전에 group을 이루어 老兵과 끝까지 동행해 준 김복형, 성실한 유기준 군에게 감사를 드린다.

정윤화·박성민·유기준 군의次回 합격과 동도제형의 건승을 기원한다.